# “내 아이, 진짜 잘 돌보고 있을까”

**가치육아** 이럴 땐

## 좋은 옷·음식이 돌봄의 전부?
## 눈맞춤 등 정서적 돌봄 중요
## 스마트폰 내려놓고 교감해야

부모가 아이와 있을 때 스마트폰 등에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안정감을 쌓아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를 잘 돌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아이를 방임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돌봄’이란 어떤 걸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는 ‘아동학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학대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하는 것이지요.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재밌는 곳에 놀러가는 것을 ‘돌봄’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와 눈맞춤 가로막는 ‘미디어’**=영유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부모의 ‘제대로 된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돌봄을 잘 받아야 커 가면서 안정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잘 돌보는 게 항상 같이 있어야 하고 놀아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필요하고 원할 때 눈을 맞춰 주고 바라봐 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엔 미디어가 이를 방해하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와 있을 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등에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면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맞추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있는데 부모가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면 아이는 불안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댈 수 있는 편안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영아라면 계속 보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눈을 안 맞춰 주니 ‘엄마 아빠, 이것 봐’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는 “왜 자꾸 보채? 짜증내?”라는 반응만 보일 뿐이죠. 정서적 방임이나 방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서적 안정감 키우기… 함께하는 것 중요**=아이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쌓기 위해선 함께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서로 같이 있는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맞추는 것이지요. 아이 앞에선 우선순위를 온전히 아이에게 둬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바라봐 주고, 하고 있는 놀이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집안일을 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엄마가 필요하면 불러”라고 말해주기도 하고요.

정서적 안정감은 ‘정서적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살을 비비며 함께하는 경험도 그런 겁니다. 주말 아침에는 이불을 개거나 씻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 아이와 몸으로 뒹굴며 놀아 보세요. 이런 느낌의 경험이 습관처럼 몸에 저장돼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른이 돼서도 부모가 아픈 배를 쓸어 줬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정서적 편안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의 불안감이 크다는 생각이 들면 잠자고 일어날 때 옆에 있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잠이 들었을 때 머리를 쓸어 주며 “사랑해”라고 말해 주기도 하고 깨어날 때도 “잘 잤어?”라는 인사와 함께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자고 있더라도 그 느낌은 전해질 겁니다. 이는 아이가 자신이 지지와 응원을 받는다고 몸으로 느끼고 ‘난 소중한 아이야’라는 느낌을 저장하게 할 겁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부모의 좋은 관계로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가 괜찮아야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빠가 가장 먼저 엄마와 안부를 묻고 가볍게 포옹하는 분위기만으로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며 흐뭇해 할 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서 중 하나가 행복감입니다. 이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행복감을 느껴 본 아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오명녀 센터장, 취재·정리=김지은 기자

>>더 자세한 내용은 한라일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치 육아 – 이럴 땐** 한라일보의 ‘가치 육아’는 같이 묻고 함께 고민하며 ‘육아의 가치’를 더하는 코너입니다.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오명녀 센터장이 ‘육아 멘토’가 돼 도내 부모들의 영유아 양육 고민과 마주합니다.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한라일보 ‘가치 육아’ 담당자 이메일(jieun@ihalla.com)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영화觀**

## 약속의 장소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를 통해 자국인 일본은 물론 국내 관객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은 재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간곡한 편지 와도 같은 작품이다. 무너지고 버려진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도를 건네고자 이 영화는 한 장면, 한 장면을 소원을 비는 돌탑을 만들 듯 공들여 쌓아간다. 무엇보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울면서도 달리는 영화다. 슬픔을 품에 꼭 끌어안고 세상의 끝을 향해 뛰어가는 주인공들을 보며 이 작품의 미션이 가진 무게에 대해 또한 번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규슈에 살고 있는 소녀 스즈메는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고향에서 재난이 시작되는 문과 그 문을 막기 위해 가문 대대로 애써온 남자 소타와 맞닥뜨리게 된다. 규슈를 시작으로 일본 각지의 폐허에서 재난을 일으키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리가 세 개 뿐인 의자로 변해버린 소타와 함께 스즈메는 재난을 막기 위한 숨가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영화는 장르적 쾌감을 짜릿하게 전해주는 오프닝 씬과 이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뭉클하게 찍는 엔딩 씬에 이르기까지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서정적인 영상,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함께 촘촘하고 매끄럽게 진행된다. 일본 전역을 아우르는 로드 무비인 동시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 영화이자 감동적인 가족 영화 그리고 청춘 로맨스 영화의 싱그러운 질감까지 모두 보여주는 이 작품은 전세계적 성공을 거둔 신카이 마코토의 대표작 ‘너의 이름은’ 이후 그의 스펙터클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재난 블록버스터이기도 하다.

또한 재난 블록버스터라는 기묘한 뉘앙스의 장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작품은 결국 영화라는 매체가 재난을 대하는 태도까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거대한 재난의 폐해를 목격하는 관객의 안전한 카타르시스가 과연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되고 마는 것이 옳은 것이지를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을 통해 묻고 있는 ‘스즈메의 문단속’은 어떤 측면에서는 신카이 마코토의 이전 작품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도전적인 질문을 건네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수많은 재난 블록버스터들이 재난에 맞닥뜨린 이들에게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심리와 인간성의 실체에 대한 탐구를 해왔다면 ‘스즈메의 문단속’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특수성을 십분 활용해 인간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영역까지를 기필코 넘어서는 작품이다.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내는 것. 폐허 위에 새겨진 생의 순간들을 간절한 기도와 지치지 않는 사랑을 통해 불가해한 모든 것들을 납득시키는 것. 그렇게 폐허가 된 곳들과 마음들을 약속의 장소로 바꾸고 가꾸는 것. 신카이 마코토는 닫힌 문의 저편을 열어 닿을 수 없는 순간까지도 펼쳐내려 하는 필사의 용기를 이렇게 영화에 새긴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